

보해 '천년에'...전라도 천년의 자부심 빛다

'정도 천년' 기념주 출시
수익금 2% 지역인재육성 기부
24일 문화전당 하늘마당서
기념공연·토크쇼 등 '페스티벌'

광주·전남 대표 주류기업 보해양조(대표 이사 임지선)가 전라도 정도 천년을 기념하는 기념주 '천년에'를 출시한다.

정도 천년 기념주 '천년에'는 광주·전남 시도민 1만 5000여 명이 함께 맛과 이름을 정했으며, 판매 수익금 중 일부인 약 20억 원을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된다.

지난 1950년 목포에 설립된 후 68년 동안 광주·전남과 함께 성장해 온 보해양조는 그동안 사랑과 관심을 보내준 시민들에게 보답하고, 전라도란 이름이 정해진 지 천년이 되는 뜻 깊은 2018년을 기념하기 위해 기념주를 만들게 됐다.

이렇게 탄생된 '천년에'는 오는 24일부터 소매점과 식당 등에서 만날 수 있다. 용량은 360ml, 도수는 17.2도다.

천년에의 특징은 '소주맛을 잡은 것'이

다. 작년 11월부터 8개월간 광주·전남 시도민 1만 50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여 소비자들이 소주의 쓴맛과 알코올 향을 꺼려한다는 점을 파악하고 소주의 부정적인 맛은 없애고, 좋은 술맛만을 남겼다. 이를 위해 보해는 미네랄이 풍부한 장성 천연 암반수에 국내 1위 주정 회사인 창해에탄을에서 엄선한 최고 품질의 주정을 활용했다.

또한 전라도 정도 천년을 기념하기 위해 광주 출신 판화작가 정승원 씨의 작품을 소주 라벨에 도입했다. 특히 보해는 천년에 출시를 준비하면서 전라도 정도 천년을 시도민과 함께 기념하고 자부심이 될 수 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시도민의 참여'를 최대한 모티브로 삼았다.

보해양조는 지난 2월 광주시·전남도와 업무협약을 통해 정도 천년을 기념하는 엠블럼을 천년에 사용키로 했으며 기념주 한 병이 판매될 때마다 판매 매출의 2%를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기존 제품 판매량을 근거로 추산했을 때 매년 20억 원 정도가 적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해는 공모전과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광주·전남 시도민들의 이야기를 온라인 콘텐츠

로 제작했다. '맛장구'를 뜻하는 전라도 사투리인 '그라제'를 타이틀로 한 모바일 사이트인 '그라제 주민센터' (<https://bohae-graje.com>)에는 천년 기념주에 바라는 점, 정도 천년 전라도에게 보내는 축하 인사 등을 볼 수 있다. 현재 김광진 전 국회의원, 이이남 작가, 기아타이어즈 장내 아나운서 MC 이수, 그리고 광주·전남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 학생들을 포함한 300여명의 메시지를 볼 수 있다.

유시민 보해양조 사외이사 역시 천년 기념주 천년을 알리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유시민 이사는 제품 후면에 자필 서명을 보냈으며, 광고 포스터 제작에도 참여했다.

보해는 시도민 1만 5000여 명의 애정과 68년 보해의 기술력이 더해진 천년에가 광주·전남의 자부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도민과 함께하는 천년에 페스티벌을 준비했다.

천년에 페스티벌은 오는 24일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하늘마당에서 열린다.

1부는 '전라도를 말한다'를 주제로 김광진 전 의원, 연출가 박강의 씨 등이 참여하는 토크쇼가 진행된다. 2부는 마마무, 김연자, 길구봉구, 뽐 등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뮤직 페스티벌이 예정돼 있다. 페스티벌은 광주·전남 시도민은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이날은 천년에 페스티벌과 함께 아시아문화전당이 주관하는 플라마켓도 같이 열려 볼거리, 즐길거리가 풍성하게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보해양조 관계자는 "광주·전남 대표 주류기업 보해가 지역민이 자부심을 되찾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천년 기념주 천년을 출시하게 됐다"며 "광주·전남 시도민의 바람을 담아 만든 천년에가 보해를 넘어 호남의 자부심이 되는 제품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조계현 소장의

톡 톡 창업이야기



프랜차이즈 창업도 노력 필수

경험과 노하우가 부족한 예비창업자가 가장 빠르고 손쉽게 창업을 하는 방법은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이다. 대개의 가맹점들이 비슷한 매출과 수익이 날 것을 기대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꼭 그렇지도 않다. 가맹점에도 어김없이 '2·3·3·2법칙'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상위 20%의 가맹점은 정밀 매출이 좋은 가맹점이 되고 중상위 30%는 꽤 괜찮은 매출을 올리고 중하위 30%는 나쁘지 않는 수준의 매출을 올리고 하위 20%는 현상 유지 수준의 매출을 올리거나 적자를 기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렇듯 가맹점마다 매출의 차이가 많은 이유는 상권과 입지의 문제가 가장 큰 경우가 많지만 그 다음의 문제는 운영주체인 가맹점주의 사업역량 차이가 매출의 차이를 만든다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다. 그만큼 가맹점은 프랜차이즈 브랜드 파워나 본사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가맹점주의 역량 역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과거에는 영세한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가맹점 모집의 확장성을 높이기 위해서 해당 브랜드의 특성상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권이나 입지의 등급을 다소 무시하고 가맹점 개설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가맹점주의 역량과 무관하게 매출이 부실한 가맹점들이 꽤 많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브랜드 파워를 강화하기 위해서 가맹점의 개설조건을 다소 엄격하게 만들어서 부실 가맹점의 개설을 최소화 하려는 움직임들이 많다. 그러다보니 입지나 상권의 문제 보다는 가맹점주의 역량이 그 어느 때 보다도 더 필요한 시점이 된 것이다.

일단 창업한 가맹점을 운영하는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어떤 노력들이 자신의 가맹점의 경쟁력을 높여서 매출과 수익을 끌어올릴 수 있는지 알아 보기로 하자. 가맹점주는 자신의 창업아이템과 관련 시장에 대해서 창업 이후에도 지속적인 공부 필요하다. 단순히 본사가 지원하는 방식에 의존해서 가맹점을 운영하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자신의 관련 아이템과 업종 그리고 고객니즈와 시장 흐름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의 노하우와 내공을 갖출 필요가 있다. 본사라는 존재가 절대적인 정답만을 가지고 움직이는 집단이 아니기에 자신만의 사업과 운영 노하우를 스스로 갖춰서 역으로 본사에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적극적인 형태의 가맹점주 모습이다.

또한 본인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매장을 운영하면서 직원들과의 인간적인 교감을 강화하여 메뉴나 제품 그리고 고객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노력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본사제 공하는 메뉴나 식재료 그리고 제품들에 대한 부족한 부분들을 본사와의 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노력도 늘 필요하다. 홍보마케팅도 본사에만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해당 상권에 맞는 홍보전략들을 개발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본사가 대체하기 어려운 대면형 고객관리도 가맹점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본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수시로 매장운영이나 경영에 관한 다양한 교육들을 받아서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 가맹점 중에서 유난히 매장운영을 성공적으로 잘 하고 있는 가맹점으로 찾아가 관련 운영 노하우에 대해서도 배워볼 필요가 있다. 또한 같은 브랜드는 아니지만 다른 브랜드 가맹점이나 개인점 등 동종 업종 중에서 소문난 곳을 찾아다니며 벤치마킹을 통해 자신의 매장 운영방식을 업그레이드 할 필요도 있다. 가맹점이 스스로 더 나은 매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데 본사가 브랜드 정체성 유지만을 이유로 가맹점의 새로운 시도에 대해 반대만 하기는 쉽지 않다. 새로운 대안제시도 본사를 움직일 수 있는 가맹점이 되어보면 어떨까?

<소상공인창업전략연구소장>

보해 '천년에 페스티벌' 출연진



마마무 김연자
길구봉구, 뽐 등 출연 (무료 공연)



청년 창업가들의 나눔 중소기업진흥공단 호남연수원(원장 최명선)은 지난 20일 대학혁신자사 광주봉사관을 방문해 '사랑의 빵 만들기' 행사를 열었다. 이날 호남연수원 임직원들은 청년창업사관학교 출신 청년창업가들과 함께 빵을 만들어 지역 내 소외계층 가정에게 전달했다. <중진공 제공>

민선 7기 벤처정책 제안

27일 '광주·전남 벤처포럼'

광주전남벤처기업협회(회장 김명술)는 오는 27일 광주·전남지역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제4회 광주·전남벤처포럼'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포럼은 (사)벤처기업협회, (사)한국엔젤투자협회의 후원으로 광주시 서구 치평동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에서 '대한민국 스타트업 창업의 현주소 그리고 세계화'라는 주제로 열린다. 키스타에서 '스마트 줄자'로 한달만에 135만 달러를 모금해 스타 CEO 떠오른 박주홍 베이글랩스 대표의 강연과 지역 기업인의 네트워킹행사도 진행된다.

또 이날 협회는 이용섭 광주시장 당선자와 김영록 전남도지사 당선자에게 지역의 벤처기업 육성방안이 담긴 '벤처정책 공약 제안서'를 전달할 방침이다. 주요 제안내용은 벤처기업 육성부서 신설과 지원조례제정, 벤처기업의 M&A활성화와 매칭지원 시스템구축 등이다. /박기용 기자 pbxer@

나만 믿고 따라와
도시어부
CHANNEL A
매주 목요일 밤 11시
이덕화 | 이경규 | 마이크로닷